

노화사실에 대한 대학생들의 지식정도 및 태도

김 경 선 (한양대 강사 간호학과)

목 차

I. 서론	IV. 결과 및 논의
1. 연구의 필요성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 연구의 목적	2. 전체문항에 대한 지식정도
II. 이론적 배경	3. 문항별 인지도
III. 연구 방법	V. 결론 및 제언
1. 연구대상	1. 결론
2. 연구도구	2. 제언
3.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참고문헌
4. 연구의 제한점	영문초록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앞으로 우리는 21세기의 사회와 문화, 과학과 기술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의학의 발달, 영양상태의 호전, 생활 여건의 향상으로 인해 인간의 평균수명은 연장되었고, 또 출산율의 감소로 인해 노령인구의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인구의 1/4를 노령인구가 차지할 정도로고령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최근 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1995년에는 60세 이상의 노인이 4백3만7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9%를 차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은 약 240만명이었으나 2000년에는 60세 이상이 약 500만명 즉, 전체 인구의 10.7%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평균수명도 1995년 71.2세에서 2000년에는 72.6세로 더욱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양적인 증가로 인해 고령화사회가 수반하는

문제 또한 다양할 수 있다. 노인들이 독립적이고 생산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과 예방적 측면의 의료서비스는 물론 노인성이나 노인을 위한 주거공간의 확보 등 Silver산업이 주요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을 대상으로 다루는 관계 인력의 확대도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구성원으로 노인에 대한 명확한 사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성공적인 노화를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 건강서비스 및 노인복지와 그 대책이라야만 진정한 노인을 위한 대책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간호계 연구는 노인이 대상이 되어 조사되었으며, 그나마도 그들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질환 중심의 연구(최영희: 1991, 1992: 김명미, 1990: 김분한, 1988: 유동준, 1990) 형태로 이루어졌다. 최(1992)는 신체적 노화에 따른 자존감을 조사하였다. 오

(1987)는 노인의 지식과 건강상태와의 관계연구를 하였다.

우리나라의 노인에 관련된 연구는 노인의 생활실태 및 노인문제 발생과 대책 등의 연구(백재간, 1982; 최순남, 1982)에서 노인복지정책 및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최성재, 1993)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노화와 노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자료가 충분치 않은 실태로 보다 많은 연구가 요구되며, 연구 또한 현재의 문제를 조사하는 조사 연구나 상관관계를 보는데 그치고 있고, 노인의 노화에 대한 실제사실을 보는데 그치고 있고, 노인의 노화에 대한 실제사실을 고증하여 이를 기준으로 노인에 대한 편견이 얼마인지를 총체적으로 접근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어떤 사실에 대해 많은 고정관념과 잘못된 오해를 가질 수 있다. 차츰 늘어나는 고령화 추세에 맞추어 노인에 관한 사실을 정확히 알고 그에 따른 계획과 올바른 수행을 하는 것이 아주 절실할 때이다. 특히 의료 서비스나 보건행정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대상자를 올바르게 알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사실인지 척도(FAQ: The Fact on Aging Quiz)를 사용하여 조사한 국내연구는 1편(윤진, 조석미, 1983)에 불과하며, 외국의 경우는 중·고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으며(Allen, 1981; Anonymous, 1986), 그들의 정답률은 55%~59% 정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여러 대상자를 선택하여 그들의 노인에 관한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잘못된 오해를 교정하는 것이 더불어 함께 사는 고령화 사회를 만드는데 우선적 과제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21세기에 사회의 주역이 될 대학생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지식정도와 태도를 간접적으로 측정해 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1)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의 정도와 태도를 알아본다.

(2) (FAQ)척도의 문항별 지식정도를 파악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노화의 정의

인간은 누구나 늙어간다. 이때 늙어간다는 것은 신체적 쇠퇴, 허약, 무기력, 생리적 기능의 쇠퇴를 가리키며 이것을 노화(senescence)라고 부른다. Birren과 Renner(1977)의 정의에 따르면 정상적인 노화과정이란 발생학적으로 대표적인 유기체가 정상적인 환경조건 속에서 살아가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히 일어나게 되는 변화라고 하고 있다. Birren과 Schroots(1984)는 좀더 구체적으로 신체적인 노화를 senescence, 노화의 사회적인 과정을 eldering, 심리학적인 면의 노화과정을 geronting 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노화에 관한 이해는 생리적인 측면에서만 다루어서는 안되며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인 부분을 포괄적으로 행해져야 한다.(Birren, Salthouse, 1990).

노화의 원인은 매우 복잡한 과정으로 많은 변수들이 노화를 가속화 혹은 지연시키기도 한다. 각박한 성격이나 장기질환 혹은 심한 손상을 입은 사람은 건강한 사람에 비해 더 빨리 노화를 경험하기도 한다. 노화의 개인차는 생화학적 변화를 포함하여 스트레스 등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노화를 다루는 이론을 크게 살펴보면 3가지로 나눌 수 있고, 이들은 생리적인 요소와 관련된 면이 적지 않다. 첫째는 유전적 이론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노화를 세포단백질의 형성과 관련된 유전정보의 변화나 손상으로 보는 것으로 Cellulate theory of DNA damage, The running-out-of-program theory, The somatic mutation by radiation theory, The error theory 등이 있으며, 둘째는 비유전 세포이론으로 세포가 형성된 후에 세포단백질이 대체되는 변화를 노화로 보는 이론으로 Deprivation theory, Accunulation theory, Wear and tear theory, Cross-linkage theory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신체적인 다른 요인과 관련된 이론들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노화를 한 조직의 사망이나 신체적 통제체제의 손상으로 보는 이론이다.

위의 이론은 심리적, 사회적 요소를 거의 포함하

지 않은 것으로 진정한 노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요소를 포함한 총괄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노화의 특성

1) 생리적 노화의 특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2)의 보고에 의하면 60세 이상의 노인의 반수 이상이 각종 질병, 특히 만성질환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노화에 따른 노인의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를 살펴보면 피부의 두드러진 변화는 머리칼이 은백색으로 변하는 것과 주름살이 생긴 것으로 자존감의 상실을 초래한다. 피부의 약함은 피하 지방과 수분의 상실로 인한 탄력섬유가 적어져서 주름살이 생긴다. (Kart, 1978 : Hogstel, 1989). 노인은 지방선에서 피지의 생산이 감소되므로 피부가 건조해지고 비늘모양으로 되며 소양증을 동반한다. (Burggraf, 1989, Matterson, 1988).

그리고 Potter와 Perry는 노인의 경우 말초신경 수용기의 활동이 감소되기 때문에 젊은이에 비해 말초 열감 냉감 및 통감에 쉽게 반응하지 못하며 노화에 따라 촉감 통감 열감의 역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악골의 치조돌기는 치아와 운명을 같이하는 것으로 이가 빠지면 이 부근의 치조돌기는 완전히 흡수되어 치아의 상실에 따른 전형적인 노인의 모습을 띠게 된다(허정, 1982). 손톱과 발톱은 노화되면서 성장이 느려지고 Ca^{++} 침착으로 노란색을 띄며 광택이 손실된다. 또한 반달도 없어지며 세로로 융기가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두꺼워지고 약해져 깨지기 쉽다.

근육은 노화되면서 점진적으로 근섬유의 감소를 나타내며 60세 이후에는 이 현상이 현저해져서 30-80세 사이에 30%의 감소를 초래한다. 근섬유의 감소로 근수축력이 감소되고, 운동범위가 축소되는데 특히 정교한 운동을 담당하는 백근보다는 자세유지를 담당하는 적근에서 현저하게 나타난다. 즉 근육 조직에서 탄력섬유가 감소하므로 유연성이 감소되고 강직성이 증가된다(전산초 등, 1985). 외모 또한 변화에 몸은 다소 지친듯이 보이고 배는 볼록나오고 사지는 가늘고, 느린 동작 즉 근육세포내의

운동단위의 수축시간, 잠재시간, 이완기간이 지연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이는 근골격계의 변화에 의한 것이다(Matterson, 1988).

골조직은 노화와 더불어 계속 변화하거나 변형된 체나 노석 방광염이 발생할 위험이 크며(김정진, 1981), 방광용적의 감소와 함께 신장은 더 이상 소변을 농축할 수 없으므로 빈뇨와 야뇨증을 초래한다(Hogstel, 1981).

일반적으로 성호르몬의 변화를 살펴보면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을 제외하고는 노화에 따른 호르몬의 감소는 없다. 여성에 있어서 폐경기 후에 에스트로겐의 감소로 선조직의 탄력성, 결합조직과 지방의 감소와 같은 유방조직의 변화가 초래되며, 자궁의 크기도 젊은이의 1/2로 감소되며 나팔관의 크기도 감소된다. 남성은 갑작스런 호르몬의 분비나 정자형성의 감소는 없지만 서서히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감소된다(Hogstel, 1981).

성욕의 변화가 나타나는 객관적인 지표로서 여성의 폐경이라고 했으나(허정, 1982), 폐경기 후의 여성에게서 성욕의 감소는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갱년기이후부터 점진적으로 질벽이 위축되고 얇아지며 점액분비가 감소한다. 남성의 경우 노화에 따라 성적흥분은 매우 천천히 일어나고 성적 에너지는 점차적으로 감소된다. 즉 노인은 성적 활동이 천천히 감소되고 긴 회복기를 필요로 하고, 성능력은 신체상과 실제적인 신체변화에 의해 위협 당하며, 성관계를 갖는 동안 지나치게 지치고 불편해하며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까 두려워한다.

또한 신경원의 상실, 신경 충동 전달의 느낌, 말초신경 기능의 상실은 자율신경계의 수행에 영향을 미쳐 신체의 균형유지는 더욱 어려워져서, 스트레스로부터의 회복이 연장되고 열 냉, 과격한 운동과 같은 스트레스는 생명에 위협할 수도 있다(전산초, 1985 : Matterson, 1988).

노화의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로 업무수행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것은 감각과정에서 효율성이 감소하고 중추신경계의 자극에 대한 반응이 비효율적으로 지연되는 것이다. 노인이 일의 처리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효율성과 정확성의 장애 뿐 아니라, 복합적인 일에 직면했을 때 노인은 더 느리고 더

신중하게 작은 단위로 일을 나누어 하려는 경향이 있다. 또한 개인의 능력과 동기과정에 따라 인지과제 수행도는 연령과 관계하여 감소한다고 하였으며, 이는 노인의 동기과정에서 젊은이 보다 낮은 효과이다. 장의 흡수부족, 당뇨병, 요독증과 같은 노인의 장기질환은 약10%정도의 무기질 감소와 함께 골다공증의 발생을 가속화한다. 이는 소장으로부터 Ca 흡수 감소로 인해 뼈에서 비정상적으로 재흡수가 증가하여 새로운 뼈의 생성을 방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Hogstel, 1981, 이선자, 1983)

다른 근육과 같이 심장의 근육도 나이를 먹음에 따라 Collagen과 지방의 양이 증가하며 심박출량이 감소한다(Burggraf, 1981). 기능적으로 심박출량의 감소는 혈류의 순환시간을 지연시켜 혈괴를 형성하게 한다(Wenger, 1981). 노인의 심장은 조직에 이용가능한 혈류량을 감소시키며 심장이나 대뇌의 문제를 일으키는 부정맥을 야기시킨다. 고혈압도 흔히 나이를 먹음에 따라 증가한다. 혈관의 경화 경향은 팽창성과 탄력성을 감소시키며 필요시의 혈액 재분비를 제한한다. 따라서 혈액요구를 증가시키는 열, 혈관수축, 격렬한 운동, 스트레스는 뇌나 심장을 저산소 상태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Hogstel, 1981).

신경근육과 순환맥관계의 변화는 폐기능에 깊게 영향을 줄 수 있다. 호흡의 기능적 변화로는 호흡근 내성의 감소, 폐역학과 환기 기능의 변화, 폐의 탄력 반동성, 폐용적 및 최대 호기율의 감소등을 들 수 있다(Kenney, 1985). 이처럼 호흡기계 근육구조와 기능이 점진적으로 감소됨에 따라 호흡과 기침능력이 80세에 이르러 30세의 3/4으로 감소한다(Hogstel, 1981).

65세 노인의 1/2에서 충치가 발생하며 2/3에서는 상악이나 하악에 치아가 없게 되는데, 이로 인해 주로 치아상실은 하악보다 상악에서 발생된다. 점막하부의 탄력성 조직의 상실과 평활근 변화와 자율신경계에 대한 자극이 감소하므로 타액분비의 감소로 구강이 건조해지고, 식도에서 대장까지의 연동운동이 감소하여 소화가 잘 안되고 간에서는 다양한 대사과정에 함유된 효소의 변화가 생긴다(Matterson, 1988 : 전산초, 1985).

또한 신장의 뉴런수에도 감소를 가져와 퇴행적변화를 일으킨다. 사구체의 여과율도 1/2정도로 감소되고 재흡수율도 감소되어 수분과 전해질 상실을 초래한다. 뇨관과 방광의 근긴장도 소실로 소변정능감을 갖을 경우 수행수준이 낮다고 보았으며, 불안, 성취욕구와 같은 내적 동기성취에 따라 개인차가 있음을 보고하였다(Birren & Schaie, 1990).

노화와 함께 감각자극에 대한 반응이 일반적으로 느려진다. 반응시간은 자극이 주어진 이후부터 그 자극에 대한 반응적 행동이 시작되기까지 걸린시간을 말하며, 이는 어떤 감각을 투입하고 그 다음에 정보를 처리하게 된다는 체재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여기서 정보를 처리한다는 뜻은 정보의 내용을 이해하고 개인이 정신세계속에서 통합하여 그것에 관한 결정을 내리고, 신호를 보내 근육을 움직이게 하여 감각체계의 출력을 산출해 내는 행동을 개시하는 것이다. 정신운동적수행은 이런 사건의 연속과정에서 어떤 단계라도 미약할때는 그것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Mildred, 1981; 전산초 등, 1985). 이처럼 정보처리과정은 중추신경계에 의존하고 연령에 따라 중추신경계는 손상을 받게 되므로, 전신운동적 수행의 반응시간은 노화의 지표로써 중요하다. 반응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수행과제가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운동과 반응의 복잡성, 양립가능성, 운동체제 반응유형이 포함되며, 연습의 효과, 검사상황의 불확실성, 건강수준, 신체활동의 효과를 통해 정신운동적 수행속도에 있어 연령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Birren & Schaie, 1990).

노인이 문제해결에 착수하는 것은 젊은이와 다르다. 현문제의 해결방안을 과거의 경험을 참고로 하려하며, 복잡한 것을 조직화하고 섬세하게 구별하는 일, 최근의 일을 기억하는데는 효율성이 저하되므로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겪는다. 문제해결 속도와 추상력에도 저하를 보이며, 일반상식이나 산술력 등은 오래 유지되며 기억력, 분석력, 지식력 등은 저하되어 지능에 영향을 미친다.

기억력은 최근의 일이나 최근에 학습한 정보를 잘 기억하지 못한다. 오래된 일을 기억하는 능력에는 최소의 손상만을 받으며, 최근의 보고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았고 복잡한 사회활동을 제

속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난 경우는 지력을 70세까지 계속 유지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노인은 새로운 자극을 제공함으로써 정신활동을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 많은 반복이 필요하고 자극제시와 반응시간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노인은 잠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밤에 자주 깨며 전체적인 수면량이 많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특수 감각수용기의 노화는 대개 20세 초에 시작되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직선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시각은 40-45세에서 노화에 따른 렌즈의 조절작용 쇠퇴로 노안의 증상이 나타나는데(김시욱, 1982) 55세에 이르면 안경을 사용해야 한다. 동공의 크기가 노화와 더불어 감소하여 시야를 위해서는 밝은 빛이 필요하고 명암에 순응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낙상이나 손상의 위험이 많다. 파장이 긴 붉은빛보다는 청색파장에 더 민감하여 노인에게는 어두운 방에서는 붉은 조명을 유지해 주는것을 권하며(Matterson, 1988 : Birren, 1990), 노인은 가까운 물체에 초점을 맞추는데 시간이 걸리며, 옆시야에는 감퇴가 있어 이로 인해 시야의 범위가 좁아지고 사회활동에도 제한이 오며, 누선에 눈물생산이 감소하므로 건조해져 각막을 자극한다(Hogstel, 1981 : Burggraf, 1989).

청각도 어느 정도의 상실은 불가피한 일이다. 코르티기관의 변화, 제8뇌신경의 신경세포 손실, 고음의 지각상실로 인해 노인성 난청 점진적인 청력 감소와 소리의 식별력의 감소를 초래한다(Hogstel, 1981 : 허 정, 1982)

전정과 운동감각은 평형·조정·체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노인의 경우에 이 두 감각이 감소하면 불안정해지고 동작조정이 잘 안되고 신체가 더 많이 흔들리게 된다(Hogstel, 1981).

미각과 후각은 개인의 음식 식별에 서로 관련되어 있으며 환경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제공한다. 생리적으로 볼때 60세가 넘으면 우리의 입맛을 좌우하는 미각세포의 반 이상 없어져 맛을 제대로 알아 내기 어렵게 된다(이출근, 1964; 현주일, 1980). 일반적으로 쓴맛과 신맛은 변하지 않으며 단맛은 감소한다.

노화에 따라 후구에 변화가 일어나 퇴화가 되기는 하지만 퇴화정도는 개인의 나이와 관련이 없으며, (Matterson, 1988), 개인의 환경과 흡연 및 질병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 의한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Hall, 1984). 일반적으로 냄새가 침분비와 배고픔을 자극하므로 감소된 후각은 식욕감소를 초래한다(Hogstel, 1981).

감각의 예민성이 변하는것은 사실상 생리적인 것일지라도 인간에 의해서 처리되기 때문에 유용한 정보를 감소시키거나 왜곡시킴으로써 항상성을 유지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심리적 기전에 영향을 주게 된다. 사고, 문제해결능력, 자아상, 의사소통과 같은 심리기능의 측면은 감각의 예민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Mildred, 1981). 감각기능의 감퇴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시각, 청각 능력의 퇴화로 말미암아 타인과의 사고나 상호작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자기 스스로도 외부적 감각자극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갖고 사회적 고립과 혼돈상태를 갖게 된다. 노령에 따른 지위 하락과 더불어 자신이 상당한 고통과 방해를 받고 있다는 감정을 갖게 되면 정신병리현상도 일으킬 수 있다.

2) 심리적, 사회경제적 노화의 특성

인간은 생물체로서 환경속에서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감지하고 생각하고 반응을 보이고 목적있는 행동을 하는 실체이다. 따라서 노화와 관련된 심리적인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Erikson은 인생주기를 사회심리적 측면에서 8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마다 습득해야할 발달과업을 제시하였다. 노년기의 발달과업으로는 자아통합감과 절망감이라고 하면서 궁극의 목적은 자아통합감의 달성으로 지나는 일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성공적인 노화의 과정이라고 하였다. 통합감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포기의 미덕과 지혜를 포함하며 성숙된 자세로 죽음을 수용한다(전산초 등, 1985).

그러나 이에 반해 자기 인생이 무의미하게 흘러갔으며 성공할 기회를 놓쳤고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탄식하게 될때 절망감이 나타난다. 자신의 과거 인생을 불운한 것으로 받아들여 우울

중에 빠져 괴로운 노년기를 보내게 된다(윤진, 1985).

Peck은 중년기 이후 노년기까지 발달과업 중의 하나로 자아지지 기반을 직접역할 이외의 다른 역할에도 잘 배분하여 자아분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직업역할에만 몰두한 나머지 직업적인 역할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자아정체감을 상실하게 되는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였다(장인협 등, 1987).

종교가 있는 노인이 없는 노인보다 현 생활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종교를 갖음으로서 사회적인 소속감을 갖고 대인관계를 함으로서 자신의 존재가치를 새삼 깨닫게 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최(1984)는 노인의 사회생활은 노화과정에서 수반되는 부정적 생활국면을 보완해 주고, 사회적 역할의 상실을 보충함으로서 개인적 가치관과 만족감을 부여하며 사회관계가 잘 유지될때 생활의 만족도가 향상된다고 하였다. 최, 등(1992)의 연구에서도 종교가 없는 노인은 종교를 가진 노인보다 사회적 건강점수가 높게 나왔다. 즉, 사회참여 희망도가 높고 사회참여로부터 얻은 만족감이 큰 노인일수록 종교참여에 대해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수용태도를 보인 김(1988)의 연구와 일치한다.

가정내에서의 사회적 노화를 살펴보면 Lowenthal은 남녀가 노년기에 역할 공백을 느끼게 되는데 이 시기에 남편은 아직 활동을 하는 경우에 있을 수 있으므로 가족내에서 표현적 역할은 해온 부인이 역할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헌신도가 클수록 '혼자 남았다'는 강한 고독감을 쉽게 가질 수 있으며 심지어 살 필요가 없는 것처럼 느낀다고 하였고, Linda는 마지막 자녀의 출가는 관습적 행동양식을 파괴하고 시간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의미있는 역할의 상실과 함께 부모로서의 의식과 정서적 의미의 주요한 원천이 상실된다고 하였다. (최영희 외4인, 1982).

은퇴는 한 개인이 가지고 있던 다른 모든 위치와 모든 타인과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노동체제에서의 갈등은 급격한 수입의 감소를 의미한다. 이전에

는 자신의 안녕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며 동시에 특권이나 지위를 누리며 살아왔다. 은퇴하고 또 신체적인 제한이 많아지면 그에 따라 경제적인 면에서도 의존적 입장에 서게 된다. 따라서 역할의 변이는 자기위치나 자존심을 저하시킨다(대한간호협회, 1989).

사회적 행동의 범위가 좁아진 노인에게 교우관계는 매우 중요하며 서로의 우정을 나누고 사생활을 이야기함으로써 정서적 만족을 얻을 수 있으며, 친구와의 강한 결속감을 갖음으로서 사회적 역할상실을 보완하려한다. (최혜경, 1984)

노인이 지각과 반응속도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수행 능력에 향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성실성, 숙련, 작업의 정확성 때문이라고 보며, Kossoris는 1800명의 공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65세 이상의 노동자들이 65세 이하의 노동자들보다 사고율이 1.5배 낮다고 주장하였다. (윤석진 등, 1983).

통계청자료(1992)에 의하면, 60세 이상의 노인 중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은 30%정도라고 밝혔으며, 유숙자(1980)는 273명은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자료에서 노인들의 주요활동은 '가사를 돌본다', '손자들을 돌본다'라고 응답하였다. 아산재단의 조사 결과에서도 85.1%의 노인이 집안일에 어떤 도움을 준다고 하였고, 노인의 80% 이상이 자녀 혹은 자손과의 동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경제기획원과 보사부의 조사(1994)에서 경제적 능력만 있으면 자녀와 별거하겠다고는 노인이 71%로 나타나, 노인의 취업을 돕는 노인능력은행의 형식적인 아닌 적극적인 운영이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겠다.

1975년 이후 현재까지 단독가구의 절대적인 수뿐만 아니라 비율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노인단독가구는 70년대 7%에서 90년대 28%로 늘어났고 2000년에는 3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변화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현상은 수정확대가족형태의 확산과 효 개념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일부 학자는 보고하며,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진, 1994).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서울의 일개 종합대학교의 학생 69명을 임의표출방법을 사용하여 선정하였다. 이들은 노인에 관한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으며, 소속과는 24개 학과로 구성되어 있다.

2.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Palmore : (FAQ)를 문헌고찰을 통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다. 척도의 문항은 21개였고,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의 사실문항과 사실이 아닌 문항을 무선으로 배치하였다. 응답방법은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의 3가지로 나누어 정확한 반응을 얻고자 하였다.

Palmore의 FAQ(The Fact on Aging Quiz)은 인간의 노화와 노인에 관한 정확한 사실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노년학도 뿐만아니라 노인을 위한 서비스종사자, 행정관리, 그리고 노인의 가족구성원등 모든사람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 노인 자신도 스스로 노화과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어야만 노년기의 심리적 적응과 성공적인 노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1976년 Palmore는 노화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확인하고 논의하고자 Duke대학에서 교과과정에 사용하기 위해 총 25개 문항(노화의 기본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 사실의 진위형태)으로 구성 설계하였다. 이 척도를 통하여 노화에 관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기본과정에 대한 사실을 개인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가를 측정하고, 또 가장 보편적으로 노화와 노인에 대하여 개인이 갖는 오해가 어떤 측면에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Palmore, 1988)

FAQ의 타당도는 1977년이후 다수의 연구에서 인정되었다. Hattzman와 Beck(1979)는 건강관리에 관련된 학생과 직원 514에게 실시하여 집단 토의를 자극하고 직업간 지식수준을 구별하여, 다른 집단 내에서 잘못된 생각을 확인하는데 유용하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반해 Klemmack(1978)는 이 척도가

노화 사실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노인에 대한 태도와 정형 혹은 고정관념을 측정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에 Palmore는 FAQ를 사용한 51편의 최근 연구논문을 검토, 분석하여 신뢰도가 높고 타당성도 역시 높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Miller와 Dodd는 몇몇 문항을 정련하고 애매한 용어와 “double-barreled” 진술을 뺄 것을 제안하여 “FAQ수정판”을 제시하였다(Palmore, 1988).

FAQ는 각 문항을 옳은 반응에 대해 점수화하고 백분율로 계산한다. Palmore는 고졸 혹은 그 이하의 대상자에게서 57%의 평균점수를 얻었고, 전문대학 혹은 기술교육을 받은 집단에서는 64%, 대학이나 기술훈련을 받은 집단(간호사포함) 혹은 대학원 집단에서는 68%, 그리고 노년학 전공학생과 교수에서는 83%의 평균점수를 얻었다. Holtzman와 Beck(1979)는 건강관리자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65%의 평균값을 얻었으며, Huckstadt(1983)는 Kansas에 있는 RN 252명을 대상으로 하여 62%, Camerson(1989)은 도시에 있는 병원의 내외과 간호사에게 64%를, Glasspoole와 Aman(1990)은 종합병원과 소규모의 노인을 대상으로 근무하는 간호사에게서 67%의 결과를 나타냈다.

이처럼 FAQ는 흔히 쓰이는 심리척도와는 달리 사실에만 근거를 둔 문항으로 구성된 것으로 앞으로 교육수준이 다른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반복 측정하여 도구의 신뢰도, 타당도 검증이 필요하다.

3.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직접 배부 작성토록한 후 수거하였다. 연구의 분석방법은 일반적인 사항과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역을 백분율로 산출하였고, 전체 지식의 점수와 태도도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4. 연구의 제한점

(1) 본 연구는 일부 대학생을 조사한 것으로 확대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2) 본 연구의 측정도구인 FAQ는 사회적인 변화에 의한 지속적인 수정이 필요한 도구이다.

IV. 결과 및 논의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 총 69명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노인에 관한 강의를 한번도 들어보지 않은 24개 학과의 대학교 재학생으로, 남학생 37명 (53.6%), 여학생 32명 (46.4%)으로 평균 연령은 23.4세였다.

성의 차이에 따른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남학생과 여학생의 정답율이 57.4%, 48.4%로 남학생이 더 높은 정답율을 나타냈다.

노인과의 동거 유무와의 관계를 보면, 동거하는 경우 남학생 62.3%, 여학생 46.7%의 정답율을 동거하지 않는 경우는 각각 52.4%, 50%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남학생의 정답율이 여학생에 비해 좀 더 높게 나타났으나 대상자 수가 적어서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으며 좀더 많은 대상자를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노인과의 동거 유무에 따른 차이도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최근의 조사 연구에서는 60%의 대상자가 아직 노부모와 동거하는 결과를 보인데 반해 동거를 안하는 경우가 71.1%로 동거하는 경우 28.9%보다 적게 나타난 것은 대상자가 학생으로 자취나 하숙등을 많이함으로써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표-1〉 성 및 동거유무에 따른 차이

	유	무	
남	62.3%	52.4%	57.4%
여	46.7%	50%	48.4%
계	54.5%	51.2%	

2. 전체문항에 대한 지식정도

노화 사실에 관한 대상자의 평균 정답률은 51.4%였다. 노인과의 동거를 하는 학생의 정답률은 54%로 약간 높게 나왔으며, 이는 윤과 조(1983)의 학생을 대상으로한 연구 54.1%와 거의 비슷하다. Allen(1981)이 208명의 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한 연구의 결과 대학생의 집단이 59%로 중·고등학생 54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Anonymous(1986)은 동경에 있는 30-59세의 성인 55명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 57%의 정답률을 나타냈다.

외국의 의료관계인력을 대상으로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Barresi와 Brubaker(1979)의 석사 출신의 사회사업가 200명을 대상으로한 연구는 68%의 정답률을 보였고, Hannon(1980)은 간호학 석사 교과과정의 노년학을 수강하기 전과 후를 조사하여 본 결과 68%에서 78%로 증가함을 보였다. Dowd(1983)는 일리노이즈에 있는 방사선과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학년, 60%, 2학년, 64%, 졸업후 방사선기사인 경우 65%의 정답률을 보여 점차적으로 노화사실에 관한 지식이 높아짐을 보였다.

문항을 세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보면, 신체적 영역인 (1, 2, 3, 4, 5, 6, 7, 9, 11)의 정답률은 61.3%, 심리적 영역인 (8, 10, 13, 19, 20)은 47.2%, 사회적 측면 (12, 14, 15, 16, 17, 18), 39.1%로 나타났다. 윤과 조의(1983) 연구에서도 신체적 영역이 58.8%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심리적 영역, 53.5%, 사회적 영역, 36.2%의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신체적 영역에 관한 노화사실에 더 지식이 많음을 보였고 사회적인 정보에는 관심이 적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12개 문항 (1, 2, 3, 4, 5, 6, 7, 8, 9, 11, 14, 17)은 미국대학생을 대상으로한 Palmore(1977)와 오스트레리아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aszez(1982)의 연구에서 공통으로 사용한 것이다. 이들을 서로 비교해 보면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신체적인 측면에는 가장 높음을 보였고, 심리적, 사회적인 측면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문화를 초월해서 3개국 대학생이 상당히 일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노인에 대한 태도의 간접적인 측정은 긍정적편견 (1, 4, 5, 9, 11)의 8.96%에서 부정적인 편견 (2, 3, 6, 7, 8, 14) 28.96%를 뺀 결과 그 차이는 -20%로 상당히 부정적인 편견이 강한 것을 볼 수 있다.

3. 문항별 인지도

척도의 각 문항별 정답률은 표-1과 같다.

문항별 정답률은 "1. 노년기에 이르면 신체의 다

섯가지 감각(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은 그 기능이 감퇴한다.”와 “5. 노년기가 되면 육체적인 힘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97.1%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14. 노인들은 대부분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가 84.0%로 나타나, 노인들을 위한 고령자 고용촉진법이 형식적이 아닌 진정한 차원에서 노인들의 적합직종의 취업을 알선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 또한 이는 능력만 되면 자녀와 별거하겠다는 노인의 경제적 자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도 있겠다. 오답률이 가장 높은 것은 “8. 노인들은 대부분 새로운 변화에 잘 적응 할 수 없다”로 47.8%, “13. 노인들이 자녀와 따로 살고 싶어한다”로 46.4% 순으로 나타났다.

“모르겠다”가 가장 높게 나타난 항목은 “17. 현재 한국 인구의 9%가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차지하

고 있다” 72.5%, 다음은 “18. 한국사람의 평균수명은 1995년 현재 71.2세로 추정된다”, 47.8%로 시사적이고 사회적인 항목에 대한 관심이 낮음을 보이고 있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서울소재 일부 대학생 69명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사실인지도와 간접적인 태도를 알아보고자 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화 사실에 관한 대상자의 정답률은 51.4%였고, 노인과 동거하는 경우도 54%로 나타났다.

영역별로는 신체적인 영역(61.3%)이 심리적

〈표-1〉 노령현상 척도의 20개 문항과 그 반응 결과표

새문항 번호	문 항	정 답 %	오 답 %	모르겠다 %
(0)	1. 노년기에 이르면 신체의 다섯가지 감각(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은 그 기능이 감퇴한다	97.1	2.9	
(0)	2. 반수 이상의 노인들은 노쇠하여 기억장애·방향감각장애·정신착란증 등을 나타낸다.	47.8	33.3	18.8
(X)	3. 반수 이상의 노인들은 성생활을 할 능력이 없다.	15.9	36.2	47.8
(0)	4. 노년기에 이르면 폐기능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	65.2	7.2	28.9
(0)	5. 노년기가 되면 육체적인 힘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97.1	1.4	1.4
(X)	6. 나이 많은 근로자들은 젊은 근로자들만큼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40.5	42.0	17.4
(X)	7. 나이 많은 근로자들은 젊은 근로자들보다 직장에서 더 많은 사고를 일으켜 산업재해를 당한다.	60.9	8.7	30.4
(X)	8. 노인들은 대부분 새로운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없다.	30.4	47.8	21.3
(0)	9. 노인이 되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된다.	76.8	8.7	14.5
(X)	10. 반수 이상의 노인들이 자기가 노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34.8	14.5	36.2
(0)	11. 노인들은 젊은이보다 자극에 대해 더 느리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50.7	24.6	24.7
(0)	12. 노인들은 진정한 노인생활이 환갑때부터라고 믿고 있다.	13.0	30.4	56.5
(X)	13. 노인들이 자녀와 따로 살고 싶어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27.5	46.4	26.0

〈표-2〉 대학생의 학년별 및 성별 차이

새문항 번호	문 항	정답 %	오답 %	모르겠다 %
(0)	14. 노인들은 대부분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일거리가 있으면 좋게다고 말한다.	84.0	5.8	4.3
(0)	15. 노인단독가구의 비율이 2000년에 35%정도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31.9	10.1	58.0
(0)	16. 반수 이상의 노인들이 자기 집안 일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33.3	11.6	15.9
(0)	17. 현재 한국 전체인구의 9%가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차지하고 있다.	27.5		72.5
(0)	18. 한국사람의 평균수명은 1995년 현재 71.2세로 추정되고 있다.	44.9	7.2	47.8
(X)	19. 노인들은 재산을 자식에게 물리지 않고 평생 간직하려는 경향이 있다.	66.7	7.2	26.0
(0)	20. 노인들은 친목회나 노인회에 참가하는 경향이 있다.	76.8	7.2	15.9

(47.2%), 사회적(39.1%) 영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인간적인 관계의 배려와 사회적인 흐름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문항별 특색을 보면 신체적인 특징을 서술한 문항 “노년기가 되면 육체적인 힘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와 “노년기에 이르면 신체의 다섯가지 감각(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이 97.1%로 높게 나타났고, 사회 심리적 흐름을 나타내는 “노인들은 대부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는데 84%의 정답률을 보였다. 또한 현재 한국 인구의 9%를 60세 이상의 노인이 차지하고 있다”는 문항에 72.5%가 모르겠다고 답하였다.

2. 제언

이상의 결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노인을 직접 접촉하는 의료진과 silver 사업에 관여하는 사람으로 대상자를 바꾸어, 노화과정과 노인에 대한 반응내용을 근거로 하여 집단토론을 벌일 수 있겠다.

2) 일정기간의 교육과 연수를 통한 정답률의 증

가와 편견을 알아내는데 활용할 수 있겠다.

3) 본 연구의 척도는 기본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흔히 쓰이는 척도와 다르며, 문항-전체간의 상관계수를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 따라서 여러집단에서 반복적인 측정을 통해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 김동일, 근대화와 노인문제-사회 심리적 고찰, 한국노년학, 1: 38-43, 1980
- 김정순, 노인의 사회활동과 자아통합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8
- 대한간호협회 서울시지부 서부분회, 노인간호-보수교육교재, 1989
- 문화일보, 10월 15일자, 1994
- 박무미, 노년기 역할변화에 대한 만족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6

- 박조열, 노인과 건강-현대사회와 노인복지- 제4회 복지사회심포지움, 아산사회복지재단, 109-118, 1983
- 아산사회복지재단, 전국노인의 생활실태와 의식구조조사1차 보고서, 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81
- 윤 진, 성인노인 심리학, 중앙적성출판사, 서울, 1985
- 윤 진, 조석미, 경상노화사실인지척도의 구성연구- 교육측정적 접근, 1983
- 장인협, 최성재,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출판부, 1987
- 전산초, 최영희, 노인간호학, 서울, 수문사, 조선일보 11월 23일자, 1985
- 최성재, 노인복지의 사회적 서비스정책-2000년대를 향한 노인복지정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82, 1992
- 최영희, 정승은, 한국노인의 신체적 건강상태 도구개발과 신체적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 성인간호학회지, 3, 1991
- 허 정, 한국의 노인문제와 이의 대책-보건대책, 대한간호, 21(1) : 1982
- Allen, B., Knowledge of Aging : A Cross-sectional Study of Three Different Age Groups, Educational Gerontology, 6 : 49, 1981
- Barresi, C. & Brubaker, T., Clinical Social Workers' Knowledge about Aging : Responses to the "Fact On Aging Quiz".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2 : 137-146, 1979
- Birren, J. E., & Schaie, K. W., Handbook of Psychology, N. Y., Academic Press, 3rd Ed, 1990
- Beverly, E. V., The Beginning of Wisdom about Aging. Geriatrics, 30(7) : 117-123, 1975
- Erdman B. Palmore, The Facts of Aging Quiz. N. Y., Springer Publishing Co, 1981
- Hogstel, M. O., Nursing Care of the Older Adult; In the Hospital, Nursing Home & Community, John Wiley & Sons, 1981.
- Kart, C. S., Metress, E. S. & Metress, J. F., Aging and Health; Biologic & Social Perspective. California : Addison Wesley pub. Co., 1978.
- Matterson, M. A., Meconnell, E. S., Gerontological Nursing-concepts & Practice, W. B. Sounder Co., 1985
- Zatterson, M. A. & Meconnell, E. S., Gerontological Nursing-concepts & Practice, W. B. Sounder Co., 1988

= Abstract =

The Facts-on-Aging Quiz of University

Kim, Kyoung Sun (Instructor of Hany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identify frequent misconceptions and indirect measurement of the attitude toward the elderly.

The measurement tool was FAQ which is short, well-documented and consist of 20 factual items only.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The average right answer was 51.4%.

- Regarding the difference between sex, male's rate is higher than female's. (57.4%, 48.4%)
- Subjects had considerable indirect attitude toward the elderly.